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6.10원 하락한 1,307.60원에 마감

26일 환율은 전일대비 6.10원 하락한 1,307.6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70원 하락한 1,312.00원에 개장했다. 개장 직후 위안화 및 달러 인덱스에 연동해 낙폭을 키웠다가 축소하는 등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보였다. 이후 미 FOMC 이벤트를 앞두고 대기모드 속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1,307.60원에 장을 마감하였다. 달러 인덱스는 106선 초중반을 등락하였으며, 장중 변동폭은 5.6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56.84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312.00	1313.20	1306.60	1307.60	1310.0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60.72	962.84	955.29	957.33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42.47	1343.41	1321.46	1322.45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09	-1.52	-5.48	-12.36
결제환율(수입)	0.08	-0.8	-4.43	-10.45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미 FOMC 관망 속 달러 강세에...1,310원 초중반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5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07.60원) 대비 3.45원 상승한 1,310.50원에서 최종 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국 FOMC 이벤트를 앞두고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 확대와 유로화 약세에 따른 달러 재강세에 상승이 예상된다. 미 연준이 75bp인상 후에도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 확대와 러시아의 유로존 가스공급 축소 통보(정상 공급의 20%로 축소)에 따른 유로화 약세로 달러화가 재강세를 보였다.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도 심화되었다. 지난 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성장률을 3.6%에서 3.2%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월마트 등 주요기업의 실적 부진에 따라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점은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하여 금일 환율 상승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월말 수출 물량 네고 및 중공업 수주 물량 등은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05.67 ~ 1314.67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0.7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45원 ↑
	■ 美 다우지수 : 31761.54, -228.5p(-0.71%)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2.66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63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